

“우리 시대 청년 스토리 들어 보실래요?”

28~30일 세계청년축제

문화 재능부터 연애 기술까지

청년강사 15명 5분 강의

8일까지 지원자 접수

‘젊은이면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다’

우리 시대 청년이면 누구라도 자신의 삶과 지혜를 주제로 5분 동안 세계 청년들 앞에서 강의할 수 있는 강사가 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리는 ‘2016 세계청년축제’에서는 ‘청바지 : 청년을 바꾸는 지혜 5분’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줄 청년 강사를 모집한다. 청년 강사는 총 15명을 모집하며 특별한

해 5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나 교수들에 비해 경험이나 지식이 미치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살아온 젊은 날의 지혜와 재능을 같은 또래의 청년들에게 소개하고 공유하는 내용으로 꾸려진다.

강의 내용은 악기 다루기, 랩과 노래 부르기, 손글씨 쓰기 등의 문화 프로그램에서부터 PT 작성법, 문서 작성법 등 사회활동 노하우, 그리고 호신 무예 배우기·연애의 기술 등 생활의 기술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시는 ‘2016 세계청년축제’의 ‘청바지 : 청년을 바꾸는 지혜 5분’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줄 청년 강사를 모집한다. 청년 강사는 총 15명을 모집하며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다. 여러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재주가 있다면 2016 세계청년축제 홈페이지(2016wyf.com)에서 참가 서식을 내려받아 오는 8일까지 이메일(2016wyf@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3일 홈페이지 게시한다.

선정된 청년 강사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2016 세계청년축제’ 청바지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청년 강사에게는 강사비가 지급된다.

이 행사는 1970·1980년대에는 교육이 신분 상승의 길을 열어주고, 1990년대에는 교육이 자아실현의 방법이었던 지금 교육이 생존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는 청년들의 현실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찾아보는 배움의 시간이다.

특히, 취업난 등에 지친 청년들이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통해 작지만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신감을 북돋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찬 2016 세계청년축제 청년감독은 “취업 준비와 스펙 쌓기라는 현실 속에 청년들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교육을 받아왔다”며 “청바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2016 세계청년축제 사무국 (062-227-8791~2),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를 방문, 직원 체험자들이 만든 한복을 입어 보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윤장현 시장 “일·가정 양립 추진 속도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방문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4일 서구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를 방문해 업무 추진상황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직장맘지원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기존 여성발전

센터가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기능 전환된 후 처음으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마련했다.

윤 시장은 이날주 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찾아가는 고충해결단” 등 사업은 바쁜 직장맘

들의 현실을 반영한 좋은 시책”이라며 “아직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무엇인지 못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어떻게 알릴 것인지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와 직장맘지원센터는 지역 여성계의 오랜 염원과 바람으로 탄생한 기관이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중앙부처 및 지역 유관기관과 밀도 있게 협력하여 일가정양립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보건연 김선희 연구사, 국무총리상

메르스 비상진단 체계 성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질병조사과 김선희 연구사(사진)가 ‘2016 상반기 정부보건의료인(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연구사는 1994년에 공직에 임용된 이후 출근 감염병 병원체 진단분야에 몸담아 매년 지역 내 (신종)감염병 발생시, 신속히 원인병원체에 대한 진단법을 도입해 자체 기관의 여건에 맞게 진단체계를 마련하고 동료들과 공유했다. 이 같이 질병의 지역 내 유입 및 확산방지에 부단히 노력하는 등 매사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태도로 맡은 바 직무에 소임을 다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해 메르스 국내유입에 따른 비상방역기간 동안 지역 내 메르스 병원체 진단담당자로서, 자체진단프로토콜을 세세하게 재 정비

하고 소속 부서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해 메르스바이러스 24시간 비상진단 체계가동을 가능케 하였다. 이로 인해 검체 접수 후 4시간 이내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방역대책 방향제시의 근거를 제공했으며, 궁극적으로 많은 우려 속에 치러졌던 광주하게U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역할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지하철 전 직원, 응급조치 과정 수료

광주지하철이 직원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는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조치 전문기관의 안전사고 대응 응급조치훈련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특히 역무원과 환경미화원, 사회복무요원 등 역사 근무자 255명 전원이 전남대 응급학과와 국제응급 E.F.R, 서부소방서, 광산소방서로부터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조치 전문강사의 체계적인 이론·실습 지도

로 진행된 이번 훈련을 통해 역 근무자들의 비상상황시 초동조치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그간 현장 응급조치훈련을 매달 실시하고, 전 역에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또한 승강장과 화상실에 비상호출 통화장치를 설치, 비상시 역무실과의 즉각 통화로 승객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역무실 내 비상상황시 비상벨 작동 한번으로 경찰·종합관제팀·해당역장에게 각각 자동통보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선수 사장은 “실제상황 발생시 머리가 아닌 몸이 자동으로 반응

할 수 있도록 짜임새있고 실질적인 안전 훈련을 반복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지속교육 연구회’ 유네스코 프로젝트 선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원사업

사회 위기 해결·공동체 교육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 푸른광주21협의회, 상임회장 김병완)는 최근 2016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공식 프로젝트’에 협의회가 주관하는 광주지속가능발전교육(GESD) 교원연구회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을 통한 사회·경제·환경의 지속가능성 증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관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란 세계가 직면한 환경, 빈곤, 에너지, 경제 사회 분야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문제들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삶의 방식과 태도에 변화를

만드는 교육이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2005~2014)’ 계획을 수립하고 유네스코를 DESD 선도 기관으로 지정해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돕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광주지속가능발전교육(GESD) 교원연구회는 지난 2014년 2월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3년간 광주 소재 초·중·고교사들을 중심으로 운영 중에 있다. GESD교원연구회(광주지속가능발전교육)는 2014년 조직해 매년 20여명의 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인원 80여명의 교사가 광주지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넘치는 끼 ‘청소년어울림마당’에 풀어 봐

매일 들·넷째 토요일 행사

청소년이 참여하고 즐기는 ‘2016 청소년어울림마당’이 유스퀘어 야외무대와 5개 자치구 근린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시는 매일 들·넷째 토요일 오후 유스퀘어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광주시대표 청소년어울림마당’의 7월 행사가 ‘응답하라, 썸머 크리스마스(水)’를 주제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광주시대표 청소년어울림마당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시 청소년수련원, 시 문화의집, 광주기독교청소년연회가 공동 주관한다.

광주시는 지난 4월 유스퀘어 야외무대에서 2016년 청소년어울림마당 선포식을 열고 시 대표 청소년어울림마당에서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선보일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날에는 여름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와 물 풍선게

임 등 도심 물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5개 자치구에서도 주제를 선정해 월 1회 이상 금남근린공원(동구), 마재근린공원(서구), 푸른길공원(남구), 문화근린공원(북구), 첨단쌍암공원(광산구) 등 5곳에서 행사를 열고 있다. 행사 장소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한편 지난해에도 기획에서부터 진행, 평가까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한글파티, 프리마켓 파티, 상벌죄 예방 캠페인 조사, 인스타그램 따라하기 등을 진행해 지역 청소년과 시민 등에게 호응을 얻었다.

황인숙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청소년어울림마당이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텔급,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물들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전원주택지

-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 대지 328평, 33세대중 1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2016년 8월말 완공 예정 매매 - 1억 6천만원
-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전원주택지

-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문화마을, 128평, 코너 계획관리지역, 위치중음 36세대중 20세대 거주 매매 - 8300만원 (조정가)
-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무인텔

동업 / 투자 / 인수 하실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낙찰
-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6억 2천만원
- 용자 - 3억 6천만원 포함
- 주인직매 H. 010-3605-5000